

## 이용통계책자 발간

2005 - 6 - 1



방사선이용통계  
STATISTICS ON RADIATION PRACTICES IN KOREA



2005



과학기술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Korea Radioisotope Association



우리 협회는 7월 6일(수)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5년도 「방사선이용통계」책자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방사선이용통계」는 매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추이를 비롯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및 수입,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현황이 수록되어 발간되고 있다.

동 통계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ri.or.kr)【'정보자료실' → '이용통계책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국내 방사선 이용기관 2,500개 돌파

- 국민 의료혜택 및 국가 산업발전 등에 폭넓은 기여 -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명)는 금년도 6월 15일을 기해 우리나라의 방사선 이용 기관이 2,500개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이 제정된 1958년에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 $I^{131}$ )을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치료에 이용한지 47년만이며, 1999년도에 1,500개 기관을 넘어선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6년만에 2,500개 기관을 넘어서게 되었다.

과학기술부와 우리 협회가 지난해 조사·분석한 '2003년중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현황'에 의하면, 의료분야의 경우 전국 134개 병원에서 X-레이·컴퓨터단층촬영(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2,542,850건의 검사와 11,891건의 치료에 활용되는 등 난치성 질병의 검진과 암치료에 결

정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의 이용은 의료분야 및 원자력발전 이외에도 식물의 성장촉진 및 억제, 유전자 연구, 반감기(방사능의 세기가 반으로 감소하는 것)를 이용한 지질이나 화석의 연대측정, 수화물검사, 각종 구조물 및 금속의 비파괴검사, 누수검사 등 의료·생명공학·공업·자원·농수산·환경·우주항공 등 첨단기술분야에도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발전과 방사선 이용기술(RT·Radiation Technology)의 비율이 약 90:10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의 경우 75:25, 일본의 53:47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비율이 낮고, 수입 의존도(약 95%)가 높아 향후 발전의 여지가 무궁한 실

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말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을 제정하였고, 방사선이용분야에서의 기술선점 및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김용환 원자력국장은 "방사선 이용기술(RT)은 반도체와 생명공학에 이어 21세기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로서 과학기술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RT분야의 육성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5년도 상반기 "전국 방사능측정소장 회의" 개최

### -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사' 발간 추진 -

우리나라의 중앙방사능측정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장과 환경방사능 관련분야의 원로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2005년도 상반기 "전국 방사능측정소장 회의"가 7월 8일(금) 10시부터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전국 방사능측정소 운영결과를 결산함과 아울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서 "비상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체제 및 관련기술 구축방안"과 "지방측정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란 2편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우리나라 환경방사능감시 자료의 국가적 종합정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사" 발간을 위한 제3차 편집위원회도 측정소장 회의에 이어서 개최되었다.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집필된 원고의 중간

점검 및 편집방향을 심의하는 자리로서 특히 원로 자문위원들의 환경방사능감시에 있어서 '50년대 말 '60년대 초의 초창기 우리나라 환경방사능 감시활동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방사능측정소는 국·내외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가 지정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지난 6월 9일 원자력연구소의 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방사성요오드(I-131) 누출 시에도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충남대, 소장 : 조 혁 물리학과 교수)에서 조기 검출하여 KINS내 중앙방사능측정소로 즉시 보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측정소장 회의를 통하여 제언된 내용에 대해서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지정서 수여식 개최

### - 전북대에서 고려대를 비롯한 6개 연구소 수여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05년도, 2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BAERI : Basic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지정·육성계획에 따라 오는 7월 7일(목) 전북대학교에서 '05년도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고려대, 한국해양대 등 6개 연구소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동 연구소는 올해 6개 연구소가 지정됨으로서 전국 7개 권역에 총 13개 연구

소가 지정되었으며, 동 연구소는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21세기 인류의 지적 프론티어 개척과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과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연구를 전공분야가 다른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협동연구를 통해 수행한다.

동 연구소의 연구 분야로는 원자력발전 안전관련 분야 5개소, 방사선 산업적 이용분야 5개소, 원자력 의학적 이용분야 3개소이다.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120여명의 대학연구자들이